

기존 동관기화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특제진공의 수평을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김관진/편집장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15일 수요일(주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급주의 법구**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법구경)

**법회 안내**

- 원력사 (02)763-5214
- 신도법회 매월 1일(음)
- 철야정진기도 매월 7-8일(음)
- 지정재일 매월 18일(음)
-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가톨릭회 넷째 일 오전10시
- 법문포교원 (02)889-4003
- 마생법회 일 오전10시30분
- 장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거사법회 첫째, 셋째 오후7시
- 가톨릭회 첫째 일 오전10시30분
- 학생회동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 신동기도 매월 3일(음)
- 심학포교원 (02)847-4809
-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보현회법회 매월 8일(음)
- 산보사 (02)352-6404
- 기초교리 매주 수 오전10시30분
-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 가톨릭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4시
- 관음사포교단 (0391)43-2985
-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청년회법회 화, 목 오후7시
- 대학생법회 매주 수 오후7시
- 고등학생법회 토 오후3시
-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 거사법회 셋째 일 오후5시
- 여교사불자회법회 매월 1일 오후5시
- 인천 능해정사(032)519-5552
- 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중·고생법회 일 오전11시
- 청년회법회 격주 일 오후2시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 해인사원담장 (0589)32-7308
- 용맹정진법회 첫째, 셋째 토 오후5시
- 아미타불찬양기도 매월 새벽3시
-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 성보전시관 건립 적극추진

정부 지원약속... 사찰 문화재 지키기 '초비상'  
송광사 영정13점 도난... 국외반출막기 총력

송광사 16국사 영정 도난사건을 계기로 사찰문화재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조계종은 각 말사에 분산 방치돼 도난 위험이 큰 지정문화재를 비롯 사찰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사별 성보전시관 건립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주존식 문화재교육부 장관도 지난 2일 "한국 사람들이 할 보유 문화재를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권유하고 사찰이 문화재 보호책임을 맡을 경우 자금과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문화재가 전국 사찰에 산재해 보호관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 모아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8일 건립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를 소집, 성보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추진 여부 및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경기도 사회국장 스님의 제안에 의하면 종경 원하스님도 송광사 영정 도난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며 "각 말사의 지정문화재를 비롯 주요 성보문화재를 본사로 취합, 본사에서 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 산하 사찰을 대상으로 성보실태를 조사, 성보 등록대장을 만들 것 △본사별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송광사 성보실태조사 등 3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은 "송광사 성보도난대책위원회(위원장 시한)"를 구성, 정부 차원의 "문화재 사법 진담반" 설치를 촉구하고 지난 2일자로 문화재교육부·법무부·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총장 전남경찰청장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조계종은 성보의 국외반출 우려가 있는 공한 형인 해양 취약 자구의 검문 검색 강화와 주한 외국인들에 의한 문화재 반출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성보도난신고센터(735-5864~5)를 상설운영하고 신고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송광사·경향장이 각각 5백만원, 문화재 관라국도 2천만원의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 도난당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내 16국사 진영(보물 1043호)수사는



국사없는 국사전. 지난달 27일 밤 송보종찰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에 모셔져 있던 16국사 진영중 13점이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국사전 뒷벽을 뚫고(왼쪽 점선 표시) 들어와 영정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 12일째인 현재(2월 8일)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한 경찰의 탐문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찰내의 범인검거 및 성보회수가 여의치 않아 수사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외 반출 우려 또한 커

지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보관리에 대한 인식을 각 성사시키고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앞으로 성보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해서는 종법에 의거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북한에 양국 30만본 보내기 운동에 불교계가 동참한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모임인 한국종교평화회의(KCRP)는 지난 7일 신라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배분본래의 무명성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양국보내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불교계에서 시한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이 대표로 참석 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8대 종교가 공동 모금 주체가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 종교상호 장기기증 합의

스님·재가불자등 생명공양 동참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생명나눔 현황의 국민적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운동본부 불교·기독교·천주교 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8일 타워호텔에서 갖고 종교를 초월한 상호 장기기증과 교류, 장기기증운동의 범국민적 홍보와 정부지원문제를 함께 협의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공양실천본부장 법장스님을 비롯, 사찰의 장기기증 본부장 박진태 목사, 한아름안음 운동본부장 오태순신부 등이 참석했으며 장기기증운동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날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장기기증운동의 대사회적 확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생명공양실천본부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신세갑씨를 간사 17명이 장기기증을 신청했으며, 프로골퍼 최희숙씨와 아비지 최장성, 언니 최희옥등 가족이 함께 장기기증을 약속하기도 하는 등 생명공양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불자가족, 부부, 학인스님등 체계적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창립된 생명공양실천본부에는 95년 2월1일까지 단장장기증자 8만62명과 현행자 1천25명등 총 1천8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불자들이 생명공양운동에 동참해왔으며 서울대 의과대학에 2명의 안구와 시신 3구를 기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北에 '쌀 보내기운동' 전개

불교등 6대종교 공동모금등 합의

북한에 양국 30만본 보내기 운동에 불교계가 동참한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모임인 한국종교평화회의(KCRP)는 지난 7일 신라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배분본래의 무명성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양국보내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불교계에서 시한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이 대표로 참석 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8대 종교가 공동 모금 주체가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키며 국제선명회가 청구역할을 한다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양국을 옹호할 가능성을 우려하나 순수·비정치적 인도적 사업이므로 남북한 양측이 순수성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 △사업은 한국정부와 상의해 추진한다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이날모임에서 이번 운동으로 모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남한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도 나눠줄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문화재 관람료 전면자율화

행정쇄신추 예치금 의무비율 차등부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사찰문화재를 포함한 사유문화재 관람료를 자율화하는 개선을 마련해 대통령에 건의함에 따라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결정토록 되어 있는 관람료를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관련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일률 30%로 적용되던 예치금 의무비율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조정했다. 또

경미한 형상변경 허가제도를 전면폐지, 문화재관리지의 자율기능을 확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원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실무위원회'를 열어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관련사찰을 중심으로 마련키로 했다.

**목어**

불사의 도리를 알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졌다는 원력 보살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새 포교사들이 과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지를 가르쳐야 한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가르침을 퍼면서 듣는 자를 수어하는 것은 일찍이 지적해 온 문제점이다. 그런데도 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개혁바람이 불면서 최근 조계종은 장에 포교사 20만명 확보계획을 세우고 포교사 자격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포교사의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면 각 종단 또는 종단협의회 차원의 단일 창구에서 포교사 자격증이 여법하게 수여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다.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지를 가르쳐야 한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가르침을 퍼면서 듣는 자를 수어하는 것은 일찍이 지적해 온 문제점이다. 그런데도 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개혁바람이 불면서 최근 조계종은 장에 포교사 20만명 확보계획을 세우고 포교사 자격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포교사의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면 각 종단 또는 종단협의회 차원의 단일 창구에서 포교사 자격증이 여법하게 수여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다.

**“전통사찰,건축법 적용안된다”대법원 판결 15면**

###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을 현대불교와 함께합시다

**현대불교의 올곧은 신념 네 가지**

- 현대불교**는 혼탁하고 영악하기만한 세상에서 한 그릇의 시원한 생수가 되겠다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 현대불교**는 불교가 어렵고 시대에 뒤졌다는 평가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교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이라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 현대불교**는 모름지기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바로 친숙해질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 현대불교**는 모름지기 불교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세기적 과제의 해법이며 민족 통일을 여는 열쇠라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주인이 되십시오 (대표전화: 737-8881)**

- 정기 구독 신청 방법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보내실 곳 (110-170)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판매부
- 정기 구독료  
1개월: 4,000원      6개월: 22,000원  
1년: 40,000원      영구: 50만원(분할 납부 가능함)
- 구독료 입금 방법  
지로 은행지로창구에 가서서 지로번호 3054464로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입금: 예금주 현대불교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와 함께 불자가 된 긍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주) 현대불교신문사  
<지로용지를 발송합니다>  
95년 1월 말 현재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은행창구를 통해 납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